

## 부모님과 함께하는 성교육

### □ 또래성폭력이란?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으로 장난처럼 취급되는 성희롱, 성폭력을 말합니다.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장난, 게임, 놀이 등을 할 때 친구의 상황이나 기분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이나 행동, 폭력 등을 또래성폭력이라고 합니다.

### □ 자주 일어나는 또래성폭력은 어떻게 있을까요?

1. 음란물(사진, 잡지, 동영상, 야설)을 보여 주거나 성행동을 흉내내기
2. 동의없이 신체 부위 만지기(엉덩이, 성기 등)
3. 장난으로 치마들추거나 바지내리기
4. 동의없이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 친구들에게 보여주거나 인터넷에 올리기
5. 상대방이 외모를 비유해서 성적으로 놀리는 것
6. 게임이나 벌칙으로 하는 스킨쉽 강요하기
7. 사이좋은 친구들을 보며 사귀냐고 놀리는 경우
8. 공중화장실에서 몰래 훔쳐보기

### □ 또래 성폭력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장난으로라도 과도한 신체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2. 상대방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분명히 표현합니다.
3. 남자라서, 여자라서 등의 이유로 어떤 행동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4. 상대방이 싫다고 말하지 않아도 분위기나 표정 등을 통해서 상대방의 기분을 세심하게 받아들이고 행동합니다.

### □ 성폭력예방을 위해- 피해자는.. !!

1. 평소에 자기 의견을 분명하게 밝히고, 원하지 않을 때는 '아니오'라고 분명히 거절하기
2. 늦은 시간에 혼자 거리를 다니거나, 혼자서 택시를 타지 않기
3.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정보는 노출하지 않기
4. 낯선 사람 및 차량 뿐만 아니라 아는 사람도 조심하고 위험한 생각이 들면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기
5. 성 행동에 대한 거절은 상대를 무시하거나 거절하는 것이 아닌 나의 성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임을 알기

### □ 성폭력예방을 위해- 가해자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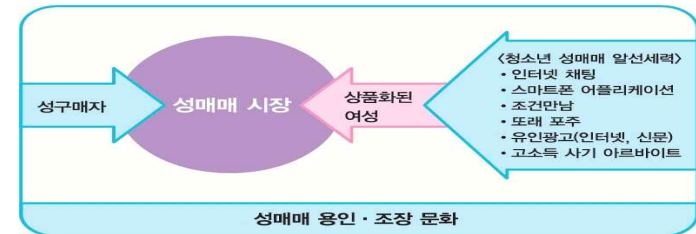
1. 행동하기 전에 피해자가 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해보기
2. 성충동을 느끼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 하지만 이성적인 사고로 충분히 조절가능 함
3. 내가 원한다고 상대방도 원할 것이라고 오해하지 않기
4. 상대방의 '아니오'는 정말 '아니오'로 받아들이기
5. 상대방의 침묵이나 반대하지 않음도 '예'로 받아들이지 않기

### ○ 성매매, 얼마나 알고 있나요?

- ▶ 성매매는 불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제안하거나 유인만 해도 처벌을 받습니다.
-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행위, 강요 및 알선 등을 저지르고 법원으로부터 인터넷 공개명령을 받은 사람의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됩니다.  
※공개정보: 사진, 성명, 나이, 주소, 실제거주지, 키와 몸무게, 성범죄 요지 등
- ▶ 성매매 행위를 저지르고 법원으로부터 형이 확정된 사람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취업제한이 되는 시설: 어린이집, 학교, 청소년활동시설 등
-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죄를 범할 때에는 형법상 감경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성매매로 인한 피해아동·청소년 등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국가에서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합니다.
- ▶ 성매매 알선과 성매매와 유사한 행위를 제공하는 여러 형태의 마사지 업소와 휴게텔 등 역시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 ○ 성매매는 왜 나쁜가요?

- ▶ 성매매는 돈으로 인간의 성을 사는 인권침해 범죄입니다.



### ○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 ▶ 불건전한 접대문화, 향락문화 거부하기·바꾸기
- ▶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및 신고활동 등 청소년 성매매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하기
- ▶ 인터넷 성매매알선 및 구매 관련 카페나 글을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기
- ▶ 주변의 유해환경 및 유흥업소 감시 및 신고하기  
-신고전화: 관할경찰서 국번없이 112  
-사이버수사대: 경찰청홈페이지([www.police.go.kr](http://www.police.go.kr))접속후 사이버범죄 신고

자료출처: 청소년 성매매예방 전국공동캠페인자료(여성가족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8년 6월

호 남 제 일 고 등 학 교 장